

최근 15년 한·중 통번역 교육 연구 경향 분석 및 미래 방향 제언 -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강 경 이
(이화여대)

1.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교육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통번역 업계는 물론 통번역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도 획기적인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 「미래의 학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의 정의(Schools of the Future: Defining New Models of Educ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양질의 교육 모델 수립을 위한 글로벌 교육 프레임워크인 ‘교육 4.0(Education 4.0)’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글로벌 시민 역량’, ‘혁신과 창의적 역량’, ‘기술 역량’, ‘대인관계 기술’,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교육 기회 확대 및 포용적 학습’, ‘문제 기반 협력 학습’, ‘평생학습 및 학생 중심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경험 측면의 8가지 주요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초융합,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의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까지와 틀을 달

* 본 연구는 2022년 11월 25일 동국대-대련외대 학술대회, 2023년 10월 14일 한국번역학회 가을학술대회 발표 내용의 일부를 부분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리하는 섬세하고도 민첩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통번역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진행되어온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들의 경향을 되짚어보고, 미래 교육의 특징과 연계한 향후 연구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에 걸친 최근 15년간 한국과 중국 통번역학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들을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한 후 두 나라 연구 경향의 특징을 비교 고찰하고, 분석 결과를 단서로 향후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로서 확장 가능한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2. 한국과 중국 내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메타 담론

국내 통번역학계에서는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이라는 특정 주제를 명시화한 통시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통번역’이라는 거시적 주제로 접근해 특정 시기 연구 동향이나 흐름을 기술하면서 부분적으로 ‘교육’ 관련 항목을 다루거나(김혜림 2013; 유한내 2020; 이창수 2018, 2019; 정호정 2013; 한현희 2016) 영상번역, 기계번역 등 세부 주제의 연구 동향을 살피며 해당 분야의 교육 연구 현황을 일견하는 연구(이상빈 2020; 조성은 2014)들이 있기는 하나 ‘교육’이라는 키워드에 몰입한다기보다 관련 연구 분야의 부분집합 성격으로 소폭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자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 국내에서 ‘통번역 교육’이라는 특정 담론에 집중하며 연구 동향을 통시적으로 다룬 선행 연구로는 한현희(2017)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현희(2017)의 연구는 KCI에 등재된 국내 3대 통번역 전문 학술지 창간호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교육 관련 논문 총 230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6년까지의 한국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들을 안 외(Yan et al. 2015)의 분류틀을 활용하여 메타분석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주제별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교수 철학, 교수법 및 모델, 능력 개발, 수요 분석, 기술 및 훈련, 연구 능력 훈련 등의 소주제를 포함한 ‘교수’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고, 학습자 퍼포먼스와 학습자 요구 연구를 포함하는 ‘학습’ 분야와 교실 평가, 전문적

승인, 인증 등 ‘평가’ 분야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하거나 공백을 드러내는 양상이었다. 이 연구는 통번역 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들을 선별하여 연구의 동향과 추이를 유형별로 개괄함으로써 통시적 고찰의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으나 세분화된 분석 틀의 일부 유형 간 구분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분석 대상이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당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 교육계의 판도를 흔드는 일련의 환경적 변수들과 맞물리며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으리라 추정되지만 아직까지 근래의 연구 경향을 짚어낸 후속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특정 시기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의 성과와 현황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며 향후 연구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메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리더핑과 후무(李德鳳, 胡牧 2009)는 중국 내 6개 통번역 관련 학술지에 1980년부터 2006년까지 27년에 걸쳐 실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246편을 선별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제 측면에서는 ‘통번역 교육의 이론 기술과 실천방안’, ‘통번역 교재’, ‘통역 교육’, ‘번역 오류 사례 분석’, ‘통번역 시험’, ‘국내외 통번역 교육 사례’ 등 6개 영역의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분석을 통해 통번역 교육 분야 연구의 문제점으로 1) 단순 이론이나 연구자의 경험 기술에만 편중, 2)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한 통역 훈련 방안 연구 부족, 3) 해외 이론이나 사례의 일방적 소개, 중국 내 실행 타당성 및 적용 방식에 대한 고민 부족, 4) 실용 통번역 분야의 교육에 대한 연구 부족, 5) 통번역 석박사 연구생 교육 관련 연구 부족 등을 지적했다. 또한 리웨이와 장화웨이(李偉, 張華慧 2019)는 통번역 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와 연구 주제, 기관 측면까지 보다 폭넓게 다루었다. 이 연구는 중국 최대 학술정보 사이트인 CNKI 내에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1,547편의 관련 논문들을 추출하여 사이트스페이스(CiteSpace)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시각화 처리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40년 동안 중국 내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를 주도한 연구진, 연구기관, 중점 논의된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도출해냈다. 주제 측면에서는 통번역 교수법, 통번역이론, 통번역능력, 커리큘럼 설계, 통번역 전공, 통번역 기술 등에 관한 연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의 동향을 분석한 샤오셴과 장란명(肖嫻, 江藍夢 2019)은 2008

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내 외국어 관련 학술지 35종에 게재된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총 265편을 검색한 후 키워드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이 기간 통번역 교육 연구 논문들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한 키워드는 ‘통번역 교육’, ‘통번역석사/MTI/MTI교육’, ‘통역’, ‘교육모델’, ‘코퍼스’, ‘통번역능력/직업통번역능력’, ‘커리큘럼 설계’, ‘통번역석사 지도교수’, ‘직업 통번역사/직업화’, ‘정보화/정보기술’ 순이었다. 이전 10년(1998~2007년)과 비교할 때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들은 ‘실증연구’, ‘직업화’, ‘코퍼스’, ‘순차통역’, ‘자기주도학습’, ‘지역’, ‘광둥외국어대 모델’, ‘번역석사’, ‘커리큘럼 설계’ 등이 언급되었다. 이 외에 자오미와 왕린하이(趙覓, 王林海 2020)의 경우 CNKI 사이트 내에서 검색 가능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관련 논문 621편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자, 주요 연구기관, 통번역 교육 세부 주제 키워드 빈도 등을 네트워킹 분석으로 시각화했다. 키워드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 ‘통번역능력’, ‘대학영어’, ‘통번역이론’, ‘교육 모델’, ‘영어번역’, ‘코퍼스’, ‘통번역 교육 모델’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서는 특정 기간 내 통번역 교육 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구 내용의 흐름이나 동향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단편적으로나마 이어져 왔다. 그러나 도출된 연구 주제 키워드나 분류 유형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항목 간 구분 기준이나 층위가 불분명한 점, 단순 빈도 분석 선에 그치고 있어 시기별, 주제별 연구 결과들의 중점 방향이나 관심도 등 보다 구체적인 연구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기 어려운 점, ‘팬데믹’이라는 전환점 전후로 발표된 최근 연구의 경향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서 최근 15년간 발표된 통번역 교육 분야 관련 연구들을 연구자가 설계한 분류 기준에 따라 주제 측면에서 세분화한 다음 정량 및 정성 분석, 키워드 빈도 분석을 병행하여 양국 연구 경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통번역 교육 연구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미래 지향적 연구 주제들을 추가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한국 양국 통번역 분야를 대표하는 총 8개 학술지(중국: 『중국번역中國翻譯』, 『상해번역上海翻譯』, 『중국과학기술번역中國科技翻譯』, 『동방번역東方翻譯』, 한국: 『통번역연구』, 『통역과 번역』, 『번역학연구』, 『통번역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 중에서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들을 선별 추출하여 2022년 상반기를 포함한 최근 15년 동안의 연구 흐름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며 짚어보았다.

첫 번째 단계로 양국 통번역 학술지 각 4종에 실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2008~2022년 상반기 게재 한정)을 엑셀에 정리 취합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주제 분류 기준에 따라 논문 목록들을 1차 유형화한 후 해당 논문들의 제목과 키워드, 초록, 내용을 살피면서 대주제 항목별 2차 세분 작업과 비중 산출 작업을 진행했다. 논문 주제 분류 기준은 교육의 3가지 요소인 ‘교수자’, ‘학습자’, ‘교과과정’을 기본 축으로 삼되 ‘교과과정’ 항목은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육평가’¹⁾ 네 가지 단계별 요소를 반영하여 ‘교육환경/수요/목표’,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교육 실행방안/교수법’, ‘평가/피드백/인증’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상위 차원에서 교육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인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통번역 교육 현황이나 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메타분석’ 측면의 연구를 유형에 추가하여 총 8개 대분류 기준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학술지에 실린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들을 1차적으로 분류한 후 각 대분류 내에서 세부 연구 방향이나 주제, 내용에 근거하여 하위 유형들로 구분하며 아래와 같이 2차 세분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
- 1) 타일러(Tyler 1949)는 교과과정 개발을 위해서 1) 학교가 성취해야 할 교육목표, 2) 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경험 선정 방식, 3)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학습경험 조직 방식, 4) 학습경험 효과 평가 방식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병희 외 2008에서 재인용). ‘교육목표 설정→학습경험 선정→학습경험 조직→평가수단 마련’ 4단계로 구분한 타일러의 교과과정 개발 모델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교과과정’ 항목을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교육평가’로 세분화하여 적용했다.

〈표 1〉 통번역 교육 연구 논문 주제 분류 기준

유형		주요 포함 내용	
1	[교수자]	1) 통번역 교수자 교육, 교수역량 개발 2) 통번역 교수자 배경, 채용 기준	
2	[학습자]	1) 학습자 퍼포먼스 및 오류 분석 2) 학습자 인식/학습자 요구 분석 3) 학습자 배경, 졸업 후 진로/활동현황	
3 4 5 6	교 과 과 정	[교육목표] 교육환경/수요/목표	1) 통번역 환경 변화 및 수요 분석 2) 인재상 수립 3) 현행 통번역교육 문제점 파악, 진단
		[교육내용]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1) 통번역대학(원) 커리큘럼 설계 방안/사례 2) 특정분야 통번역 인재 양성 3) 특정주제 교과목 개발&개설 4) 통번역 전문인재 양성 모델링 사례/제안 5) 통번역 전문가 역량/인재상의 교육적 연계
		[교수학습] 교육 실행방안/교수법	1) 통번역 수업 운영방식/교수방법론/실습방안 2) 통번역을 위한 하위역량 개발/훈련 방안 3) 수업 내 보조도구 활용방안 4) 언어학과 텍스트학 관점에서의 통번역 전략 훈련 방안 5) 통번역 교육자료/교재
		[교육평가] 평가/피드백/인증	1) 통번역능력 인증/승인, 시험 2) 교실 내 학습자 평가/결과물 피드백 3) 교육 및 수업 품질/만족도 평가
7	[교육기관/교육제도]	1) 통번역 교육기관 설립, 운영제도 구축 2) 통번역 교육기관 학제	
8	[메타분석/교육개론]	1) 통번역교육 일반/개괄 2) 국내외 통번역교육 현황 회고/ 연구동향 분석	

세 번째 단계는 높은 빈도로 연구된 주제들을 보다 심도 있게 펼쳐보고자 필요에 따라 웹기반 데이터분석프로그램 ‘텍스톰(Textom)’을 활용하여 키워드 빈도 분석도 병행 실시하였다. 키워드 빈도 분석 작업을 추가로 진행할 논문 목록에 대해서는 각 논문 표제어와 주제어들 중 연구 내용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추출한 다음 분석의 정확도 제고와 집약적인 수렴을 위해 토큰화 및 사전 데이터 정제 작업을 거쳤다. 키워드 빈도 분석을 위한 키워드 데이터들은 시각적 비교의 편의를 위해 중국어 키워드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토큰화 단위는 기본적으로 단어를 최소 단위로 설정했으나 맥락상 조합어가 연구방향의 구체성 판단에 도움이 되면 복수

의 단어를 조합하여 하나의 토큰 단위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과정중심’의 경우 교수법의 한 유형이라 판단하여 ‘과정’과 ‘중심’을 독립된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과정중심’을 하나의 단위로 구분했다. 또한 데이터 정제 시에는 우선 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문장부호 등 크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불용어’들을 제거했고, 유사 표현들의 경우 용어를 합병하여 일관되게 통일하는 것을²⁾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키워드 빈도 결과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함으로써 해당 기간 연구 비중이 높은 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4. 주제별 비중 및 논문 키워드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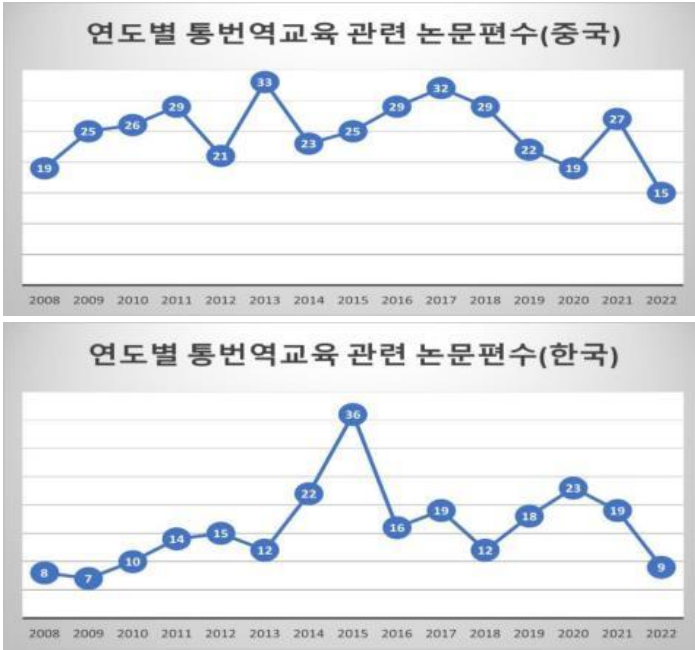
4.1 최근 15년 한·중 양국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 주제의 통시적 경향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를 학부 번역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과 중국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통번역 교육 관련 논문 편수는 한국 총 240편, 중국 총 374편으로 집계되었다. 15년간의 논문 수를 시계열적으로 펼쳐보면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매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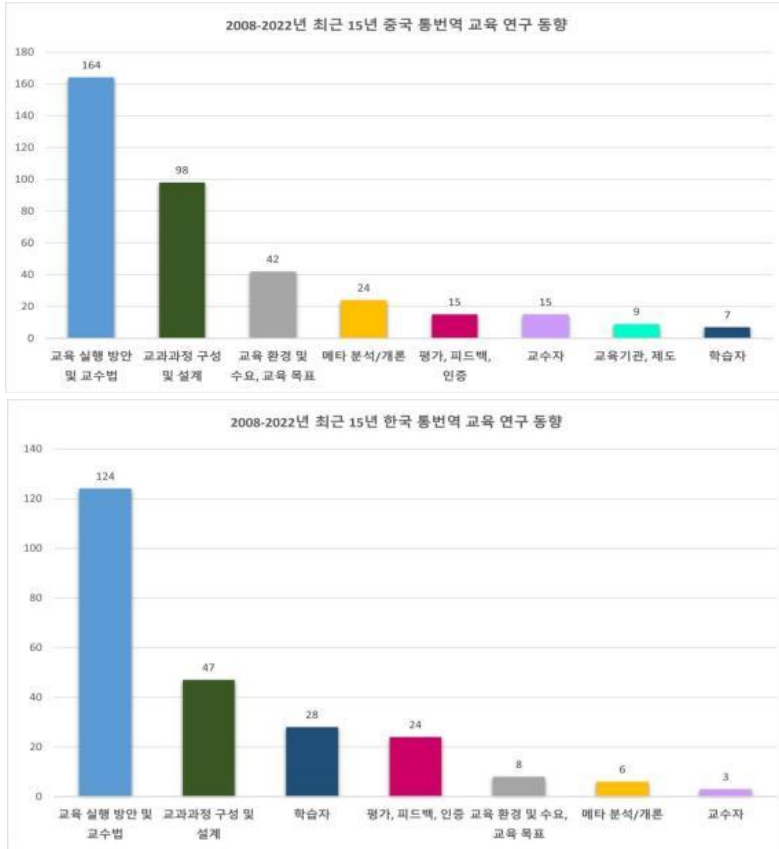
2) 동일한 용어를 지칭하나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기한 경우 유사 개념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용어로 병합하거나 괄호 병기 형태로 일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교수방법’과 ‘교수법’, ‘AI’와 ‘인공지능’, ‘자기평가’와 ‘자가평가’, ‘CAT’과 ‘컴퓨터보조번역’, ‘온라인수업’과 ‘원격수업’ 등이, 중국어에서는 ‘MTI’와 ‘翻譯碩士專業學位(통번역석사학위)’, ‘CAT’과 ‘計算機輔助翻譯(컴퓨터보조번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1〉 연도별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 편수



이 중 예년보다 유독 많은 편수를 보이는 기간들이 있는데, 이는 해당 학술지에서 통번역 교육 주제의 특별호를 기획하거나 별도 장을 할애해 교육 관련 주제만을 집중 게재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가령 중국에서는 2013년 『중국번역』 5호에 ‘통번역 교수자 훈련’ 관련 논문이 집중 게재되었고, 2017년에는 『중국번역』 3호에서 ‘통번역 석사과정 전문교육 설립 10주년’을 맞아 통번역 석사교육 현황을 회고 및 진단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논문들이 한꺼번에 실리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2015년에 특히 논문 편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현상은 『번역학연구』 16권 4호가 ‘통번역 교육’을 주제로 한 특별호로 발간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2〉 주요 학술지 게재 '통번역교육' 관련 논문 연구 주제 순위



앞서 제시되었던 대주제 유형에 따라 논문들을 분류한 결과, 중국과 한국 모두 ‘교육 실행방안 및 교수법(중국: 159편 43%, 한국: 124편 52%)’,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중국: 104편 28%, 한국: 47편 20%)’ 두 가지 항목과 관련된 논문의 편수가 가장 많았다. 통번역 능력 배양, 통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방법, 수업 운영방안, 관련 커리큘럼/교과목 설계에 대한 연구들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에서 양국은 공통된 경향을 보인다. 한국과 중국 모두 커리큘럼 구성이나 실제 교수방법, 수업방안과 직결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3, 4위 주제 항목에서는 두 나라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교육 실행방안 및 교수법’,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보였던 연구 주제가 ‘교육 환경 및 수요, 교육목표(42편, 11%)’, ‘메타 분석/개론(23편, 6%)’ 순으로 나타났고, ‘학습자’나 ‘평가’ 관련 항목은 현저히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통번역 교육기관의 설립 취지와 기대방향, 수요 분석 결과나 환경 변화에 따른 통번역 교육기관의 지향점, 통번역 교육의 문제점 진단 등 주로 거시적 층위에서 접근하거나 국내외 통번역 교육 현황,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의 통시적 분석, 통번역 교육 일반 개론 등과 같이 메타적으로 접근한 연구들도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더불어 통번역 교육 교수자 훈련(Training Of Trainer), 교수자 양성 및 역량 개발 모델, 교수자 역할, 채용 기준 등 수업을 관장하는 교수 주체를 중점 이슈로 부각한 연구들이 한국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학습자(47편, 12%)’, ‘평가/피드백/인증(28편, 10%)’ 관련 논문의 비중이 각각 3, 4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교수자’나 ‘메타 분석/개론’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즉, 수업 방식이나 피드백 방식, 통번역 능력 등에 대한 학습자 인식 및 선호도, 훈련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산출하는 퍼포먼스의 오류 양상 및 문제 발생 요인, 불안 요인, 자기 주도 학습이나 진로 설계 현황 등 학습 주체 관점의 연구, 교실 내 학습자 통번역 결과물 평가, 통번역 능력 인증 시험, 교육 품질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 평가나 피드백 측면의 연구들이 중국에 비해 두드러졌다. 그에 반해 교수자, 메타 분석, 교육 기관 측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미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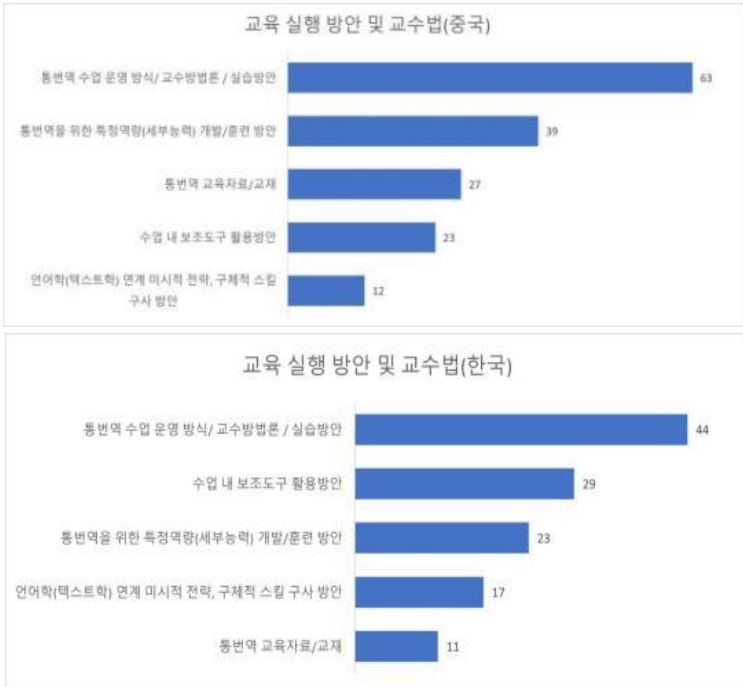
4.2 구체적 교육 방안에 관한 세부 키워드 고찰

상술한 분석 결과에서 한국과 중국 모두 통번역 교육의 실질적 운영과 연계된 연구에 치중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번 장에서는 상위빈도에 속하는 연구 주제인 교수법과 교과과정 관련 논문들을 중심으로 어떤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2.1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먼저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측면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 모두 ‘통번역 수업 운영 방식/교수방법론/실습방안’과 ‘통번역 세부역량 개발/훈련방안’을 논하는 연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수업 보조도구 활용방안’을 다룬 연구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통번역 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육방법, 수단,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림 3> ‘통번역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분야 내 세부 주제 빈도 순위



특히 중국의 경우 특이할 만한 점은 ‘통번역 교육자료/교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통번역 교육에 사용하는 실습 콘텐츠로서의 텍스트 선정은 물론 통번역 분야별 개론서나 실습서 형태의 교재 제작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는 2006년 이후 통번역 전문 학부, 대학원 과정이 대거 설립되면서³⁾ ‘통번역 전공자들을 위한 전

문 통번역교재'가 필요했던 통번역대학(원) 설립 초반부의 니즈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제2외국어 전공 수업의 일부로 제작되었던 통번역 수업 교재들은 문학번역에 편향되어 있거나 시의성이 떨어지는 등 통번역 전문대학이나 대학원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 운영 방식에 부적합한 면이 있어 그와 차별화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러한 고민이 연구로도 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 교재 개발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최근 교육 현장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추세에 따라 교재나 실습콘텐츠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로 조금씩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부터는 주요 키워드 분포도4)를 활용해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항목 중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주제인 ‘통번역 수업 운영방식/교수방법론/실습방안’에 관한 논문들이 주로 어떠한 핵심 의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통번역 교수방법 관련 논문 주요 키워드



- 3) 중국에서는 2006년 3월 광둥외대, 푸단대, 허베이사범대 3개 학교의 통번역전공 학부 과정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으로 학생 모집을 실시했고, 2007년에는 15개 대학의 통번역전공 석사과정(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MTI)이 교육부의 승인으로 신설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25곳, 2010년에는 118곳이 추가로 개설되었으며 2018년 12월 기준 통번역전공이 개설된 학부는 272곳, 석사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은 249곳, 박사과정 개설 대학원은 40곳에 이른다(仲偉合 2019).
- 4) 키워드 분포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워드클라우드는 출현빈도가 높은 핵심단어일 수록 폰트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를 기준으로 키워드 빈도를 추출하였다.

상기 워드클라우드 생성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연구들에서는 ‘온라인(원격) 수업’, ‘사회구성주의’, ‘워크샵’, ‘블렌디드러닝(플립러닝)’, ‘과업(사례)중심’, ‘협력(협동)수업’, ‘상호작용수업’ 등이 상위그룹에 포진되어 있으며, 한국의 주요 연구 키워드로는 ‘온라인(원격)수업’, ‘수요기반’, ‘블렌디드러닝’, ‘학습자중심’, ‘협력(협동)수업’ 등이 가장 많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한국 모두 ‘온라인(원격)’, ‘사회구성주의’ 두 가지 요소를 기본축으로 한 연구들의 비중이 높다는 공통분모를 읽을 수 있다.

우선 온라인이나 원격 수업, 블렌디드러닝(플립러닝)⁵⁾의 적용 및 병행에 관한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전통적인 교실수업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거나 다양한 온라인 학습 방식들을 개발해 실험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다.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도 사전 및 사후단계에서의 온라인학습 병행, 온라인 상 각종 플랫폼의 수업 연계방안, 팬데믹 등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원격수업 설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구성주의적 교수설계 관점에 기반한 이슈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회구성주의적 교육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을 구성하고 내재화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박성익, 엄철일, 이재경 2015; Kiraly 2014). 이를 위해 학습자중심, 맥락중심, 문제중심, 목표기반의 교수 학습 환경을 설계하여 다양한 상호작용과 협업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법을 통번역 수업에도 접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워드클라우드 상의 키워드로 보면 ‘사회구성주의’라는 직접적인 키워드 외에 ‘과업(사례)중심, 협력(협동)수업, 상호작용수업, 실제프로젝트기반, 워크샵(翻譯工作坊, 팀별 과업, 학술강좌, 토론, 산학협력 등의 요소를 통합한 형태), 수요기반, 학습자중심, 과정중심, 토론중심’ 등 키워드들도 학습방식이나 목적, 속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주의에 기반한 교수설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양국 모두 통번역 교육에서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을 구

5)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수업시간 전에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이후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식 강의를 진행하는 블렌디드러닝의 일종이므로 하나의 키워드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체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하다는 방증이다.

또 한 가지 유의미하게 짚어볼 키워드는 중국의 ‘프로젝트 관리’, ‘산학협력’, 한국의 ‘사용자 참여’다. 이는 통번역 훈련에 실제성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가 내포된 키워드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입장과 관리자적 마인드로 통번역 작업을 둘러싼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연구나 통번역 사용자와의 코칭 제안, 학교와 기관의 교육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실제 통번역을 발주하는 수요자를 교육 주체로 편입시키는 수업형태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통번역사가 보다 거시적이고 전면적인 관점에서 통번역 과업을 수행하고 사용자들과 적극적인 접점을 형성하고 협업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특정 하위역량 개발, 훈련방안’ 주제로 분류된 논문들의 상위 키워드들을 살펴보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하위역량은 통번역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자질과 통번역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 능력과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다. 아래 <그림 5>와 같이 중국에서는 ‘논문작성/글쓰기’, ‘창의적 사고능력’, ‘통번역이론’, ‘스키마활용’, ‘통번역기술능력’ 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노트테이킹’, ‘한국어’, ‘세계영어’, ‘창조성(창의력)’ 등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림 5> 통번역 하위 역량 훈련 관련 논문 주요 키워드



중국은 논문 작성이나 글쓰기, 통번역이론과 연구능력의 함양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논문을 석사 학위 취득 요건으로 두고 있는 제도적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생들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무 비중이 큰 전공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위논문의 형식으로 통번역 실천보고서, 통번역 실습보고서, 통번역 수업사례분석 보고서, 통번역 연구논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통번역 실천보고서 형태를 제출하는 추세다. 통번역 실천보고서는 1만 자 이상의 중국어 혹은 외국어 텍스트에 대한 번역을 실시하고 번역과정 상의 이슈, 전략, 문제점 등을 통번역이론에 기반하여 자체 분석, 평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대개 번역 과업 소개, 이론 기술, 과정 기술, 사례 분석, 총평 순의 구조를 취한다(孫三軍, 任文 2019). 따라서 적절한 이론적 틀을 선정해 통번역 실제 사례와 접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은 물론 실무에 이론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韓子滿, 侯新飛 2022), 이를 완성도 높은 하나의 분석보고서로 완결하려면 논문 작성 능력과 글쓰기 능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적, 제도적 수요와 연계되어 이론, 연구, 논문, 글쓰기 등의 키워드들이 통번역 교육 연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 외에 창의적 사고력과 ‘스키마’ 이론을 활용한 통번역사의 인지능력, 정보처리능력, 통번역기술능력 훈련에 관한 키워드들도 자주 출현했다.

한국의 경우 ‘노트테이킹’, ‘한국어’, ‘세계영어’, ‘창조성(창의력)’ 등이 통번역 세부 역량 훈련과 관련해 빈번하게 거론되었다. ‘노트테이킹’, ‘새도잉’, ‘시역’ 등 통역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부적 스킬 훈련 방식을 논하는 연구나 ‘한국어’, ‘세계영어’ 등 통번역을 위한 언어 강화 측면의 교육 방식을 논하는 연구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최근 한국과 중국 모두 트랜스크리에이션이나 창조성 관련 키워드들이 비중있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번역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일부 통번역 영역에서는 기계번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거나 기계번역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간 통번역사들은 기계번역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분야, 고도의 창의력과 밀도 있는 문장구사력을 요하는 분야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번역 교육 연구에서 창의력 관련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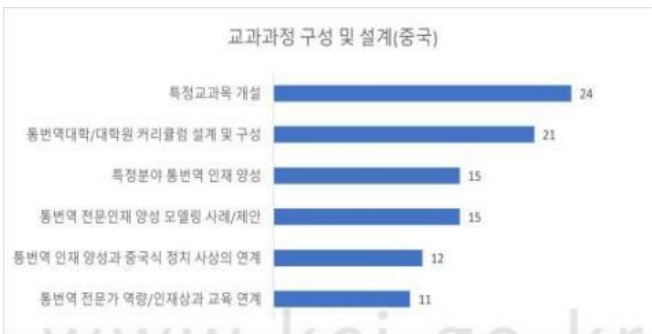
‘SNS’, ‘메타버스플랫폼’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스마트 기기, 멀티 플랫폼, 앱, 소셜 미디어 등 외부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스마트 러닝 환경 구축, 교육도구 및 매체 다각화, 학습 공간 확장, 자기주도적 학습 설계 등 통번역 교육 고도화 구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영상번역 툴이나 스타일가이드, 컴퓨터 보조번역, 포스트에디팅 등 효율적인 통번역 작업에 필요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관련 키워드들도 비중있게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중국에 비해 ‘번역일지(문제해결보고서)’, ‘통역저널’ ‘회상구술’ 등의 키워드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통번역 학습자들의 번역 전략 의사결정 근거와 통번역 결과물 산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중심 교수법 수단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4.2.2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교과과정 구성 및 설계’ 항목으로 분류된 논문들은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정 편제와 관련된 연구들로 커리큘럼 설계 방안 및 국내외 사례, 특정분야 통번역 인재 양성, 특정 주제 교과목 개발, 통번역 전문인재 양성 모델링 사례, 통번역가 인재상 등 보다 거시적인 교과 시스템 차원의 세부 주제들이 포함되었다. 그중에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주제는 다음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특정 교과목 개설’과 ‘특정 분야 통번역 인재 양성’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림 7〉 ‘통번역 교육 실행 방안 및 교수법’ 분야 내 세부 주제 빈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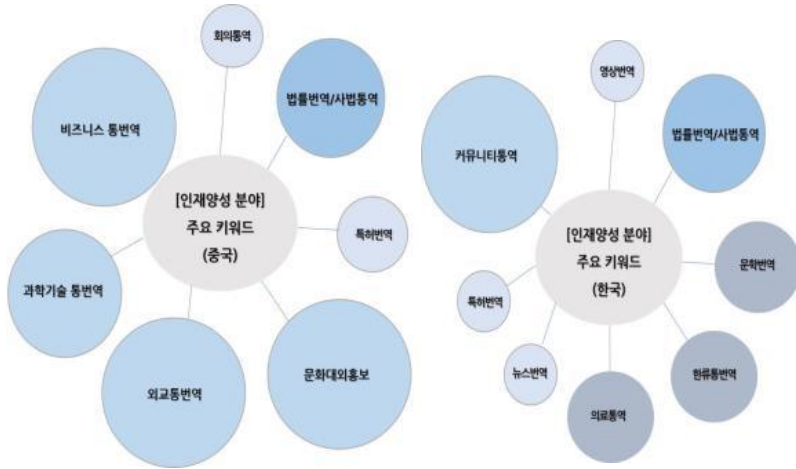
나라별로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통번역(언어서비스)기술’, ‘프로젝트관리’, ‘컴퓨터보조번역(CAT)’, ‘현지화(로컬라이제이션)’, ‘과학기술번역’이 상위 키워드로 포진되어 있다. 컴퓨터보조번역을 포함한 통번역 및 언어서비스 기술 관련 과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앞서 훈련역량 항목에서 통번역 기술활용능력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추이치량(崔啓亮)에 따르면 중국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기술’ 과목은 통번역기술개론, 사무자동화소프트웨어, 정보검색도구, 코퍼스기술과 도구, 컴퓨터보조번역 소프트웨어, 번역품질(QA)관리도구,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영상 자막번역과 디빙번역 프로그램, 통번역프로젝트 편집디자인프로그램(인디자인 등), 테크니컬라이팅, 통번역관리기술(TMS), 용어관리도구, 통번역거래 플랫폼, 로컬라이제이션도구 등 통번역, 언어서비스, 현지화 작업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전반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崔啓亮 2019: 81-82).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통번역기술 관련 과목 개설에 관한 논의가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인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반적인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에서 통번역전공 학부와 대학원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던 초반부터 통번역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역량들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수법 개발에 노력해왔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화, 프로젝트관리 등 ‘언어현지화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한 교과목의 개설 제안도 많은 편으로 단순 통번역 훈련에 편중되지 않고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통번역 서비스 과정 전체를 통합적, 거시적으로 통찰하는 경험을 제공하거나 현지 문화와 실정에 따라 자국화하는 실습 단계까지 나아가는 등 보다 폭넓고 현장성 있는 프로그램 구축을 강조해왔다.

반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키워드는 ‘포스트에디팅/기계번역’이다. 최근 기계번역 보편화로 기계번역의 결과물을 후편집하는 포스트에디팅 작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통번역 전공 학부나 대학원의 훈련 내용으로 어떻게 편입시킬지에 대한 경험적, 실험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통번역 기술적 측면의 과목 신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긴 하나 시기적으로 2016년 이후부터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다 연구주제도 ‘포스트에디팅’과 ‘컴퓨터보조번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논의의 본격화 시점이 중국에 비해 다소 늦고 주제의 폭도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번역인력 양성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통번역 인력 양성이 필요한 분야’ 관련 키워드 분포도



중국에서는 ‘비즈니스통번역’, ‘외교통번역’, ‘문화대외홍보’, ‘과학기술통번역’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저우추취(走出去)’,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 정부의 대외 정책 및 수요와 맞물린 결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외 진출 글로벌화’를 뜻하는 ‘저우추취’ 정책에 따라 자국 기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장려해왔다. 경제 분야를 넘어 문화 분야로도 확장되어 국가 차원에서 중국 문화의 ‘저우추취’ 전략이 공문화되면서 중국 문화와 스토리를 널리 홍보하고 문화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민족적, 문화적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趙丹 2023). 더불어 최근에는 2014년부터 2049년까지 중국 주도의 내륙과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외교, 문화 분야의 대외 정책 이행 과정에서 협력 및 협상, 홍보 작업에 투입되는 통번역사의 역할과 역량이 강조되면서 국가적 수요에 대한 교육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도 많아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커뮤니티통역’ 분야 관련 키워드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통번

역전공 학부나 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일반 회의통역뿐만 아니라 병원, 법정, 경찰서, 행정기관, 학교 등 공공제도권에서 대화통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통역에 대한 수요도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비교적 많았다. 한편 ‘법률번역/사법통역’ 분야의 인재 양성에 대한 이슈는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다.

5. 미래 통번역교육을 위한 연구주제 제안

앞서 최근 15년간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 연구 주제들을 살펴본 결과, 국가적 수요나 현지 통번역 환경에 따라 관심도가 상이한 영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통번역기관의 교육과정이나 교수법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존에 축적된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중점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습경험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모색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번역 교육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의 폭을 입체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보다 정교한 교육적 실험과 선구안적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창의적, 기술적, 소통적 역량이 중시되고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평생학습, 협력학습, 포용적 학습, 학생중심 학습을 추구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을 고려할 때 향후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본격 논의를 확대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의 외연을 확대해 편중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연구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화두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간 양적, 질적으로 미흡했던 분야로 시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습자의 자가학습 방법론 제시, 결과물 산출 과정에서의 오류 분석, 학습 촉진 및 방해 요인 분석, 졸업생 커리어 구축 현황 분석 등 학습자 측면에 주안점을 둔 연구나 교수자의 지속적 역량개발, 교수자 선발 및 교수자원 활용 방안 등 교수자 측면에 방점을 둔 연구, 통번역능력 인증 평가, 교육기관 평가, 교수자 능력 평가, 학습자 성취도 평가척도 개발 등과 같은 평가 및 인증 측면의 연구, 통번역 교육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과 수요 형

태 변화에 관한 연구 등은 지속적인 논의와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급변하는 시대상에 따른 통번역 역량 및 통번역사 역할에 대해 재정 의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의 효율적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통번역 영역의 확장 반경과 통번역사의 역할 변화를 발빠르게 감지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적 측면의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원격통역,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등 기술과의 협업 방안은 물론 인간 고유 영역인 ‘창의성’, ‘창발성’ 역량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더욱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들이 발 빠르고 다양하게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계번역 및 인공지능 활용에 따라 과생되는 통번역사 직업윤리, 통번역 결과물 데이터 소유권, 업무 책임범위, 갈등처리방식, 통번역 교수자 직업윤리 등과 같은 이슈로도 관심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셋째, 통번역 교육에 적용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수단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제로 교육에 접목하여 도출한 경험을 공유하며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많아져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에도 교수법, 수업방안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시대상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나 실험 사례들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미래 학습 환경과 학습 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교육방식을 시도 및 적용하고 실효성을 검증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령 통번역 수업에 기계번역이나 인공지능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지, 통번역 작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반 기술들을 어떻게 전수할지, 통번역 교수법 보완 및 최적화를 위해 활용 가능한 기술이나 플랫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공론화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통번역교수자, 통번역 교육연구자, 교육공학전문가, 기술구현전문가 등의 협업 연구도 적극 시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통번역 교육의 현업적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산관학 협업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제안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과 시장의 인력활용 기능이 원활하게 맞물려야 하며 학교와 기업이 동참하는 직업교육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통번역 교육에 적합한 산관학 협력 모델 사례를 제안하거나

구체적인 방식을 실험해 보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 대학(원)의 기존 커리큘럼을 융합하는 매트릭스 교과과정(matrix college)을 설계하거나 현장 실습, 인턴 파견 제도, 프로젝트 협업, 교수자와 실무자의 코칭 등 문제중심 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에 기반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전 생애에 걸친 순환형 평생학습’과 ‘학생, 수요자 중심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미래 교육 담론이 통번역 교육 설계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제도권 학교 교육 시대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자유롭게 배움을 주고받는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창조성이 강조되는 비형식, 무형식, 탈형식의 일상학습 시대가 예견되고 있다(최운실, 맹은경, 정구영 2019: 1714). 생애 전반에 걸쳐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일상학습이 부단히 일어나게 되므로 앞으로는 교육 대상자는 물론 교육 진행자, 운영자들도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는 학습민첩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번역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도 이러한 니즈 변화를 감지하고 졸업생 재교육 프로그램, 교수자 재교육 프로그램, 공식 학위 과정 외 마이크로 학위(Microdegree), 온라인 학위 등 미래 추세에 걸맞은 통번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형식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6. 결론

지금까지 보고는 최근 15년간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된 통번역교육 분야 연구 경향을 주제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연구 경향의 회고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연구 주제의 방향을 제안해보았다. 그간의 연구 동향을 짚어본 결과 중국과 한국 모두 통번역 능력 배양, 통번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방법, 수업 운영방안, 관련 교과목 설계와 직결된 연구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추이로 볼 때 중국은 학습자나 평가 관련 연구가 미진한 대신 교육 환경 및 수요 분석이나 메타 분석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고, 한국은 학습자와 평가, 피드백, 인증 관련 논문의 비중이 높

은 반면 교수자나 메타분석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부문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수법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온라인 및 원격 수업 관련 이슈와 사회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으며, 통번역을 위한 세부 훈련 항목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창의성 관련 키워드들이 비중 있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보였으나 중국의 경우 논문 작성이나 글쓰기, 통번역이론, 연구능력 관련 키워드들이 많은 반면 한국은 통역의 세부적 스킬 훈련, 언어 강화 측면 키워드들이 많다는 차이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수업에 활용하는 지원도구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코퍼스를 비롯해 외부 플랫폼이나 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기술, 통번역 보조프로그램 관련 키워드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추세였다.

교과과정 설계 항목에서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으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통번역기술 관련 키워드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었고, ‘통번역이론’, ‘현장실습’, ‘직업윤리’ 등의 키워드도 공통적으로 등장했다. 번역 인력 양성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 있어서 양국 모두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사법 분야였다. 다만 중국의 경우 정책적 수요에 따라 ‘비즈니스통번역’, ‘외교통번역’, ‘문화대외홍보’, ‘과학기술통번역’ 분야의 키워드가 많이 도출된 반면 한국의 경우는 ‘커뮤니티통역’ 관련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의 지향점으로는 1) 통번역 교육 연구 주제의 외연 확대 및 편중도 해소, 2) 급변하는 시대에 따른 통번역 역량 및 통번역사 역할에 대한 재정의 및 효율적 제고 방안 고민, 3) 통번역 교육에 적용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수단의 적극 발굴 및 실제 교육 접목 시도, 4) 다양한 형태의 산관학 협업 방안 모색 및 제안, 5) 평생학습과 수요자 중심 추세를 반영한 통번역 교육 설계 등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본 연구는 챗 GPT 등 주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2022년 후반부와 2023년도를 분석 시기 내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과 연구 경향을 주제 및 키워드로 국한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미진한 항목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한국과 중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 경향을 통시적으로 살펴며 각 나라의 연구 주안점을 비교해보는 관점의 메타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작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병희, 정길영, 차상희, 은은숙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육과정의 이해』, 고양: 공동체.
- 김태성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 해설 - 대학 및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3): 333-353.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박성익, 엄철일, 이재경, 최정임 (2015)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과주: 교육과학사.
- 유한내 (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외 통번역 연구동향 비교」, 『통역과 번역』 22(1): 135-158.
- 이상빈 (2020)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2011~2020년 초)의 논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75-104.
- 이창수 (2018) 「국내 번역연구의 어제와 오늘: 텍스트 마이닝 분석 - 번역학 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2): 233-252.
- 이창수 (2019) 「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 『번역학연구』 20(5): 107-129.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 동향 - 1999년 이후 국내외 대표 학술지 분석」, 『통역과 번역』 15(1): 235-256.
- 조성은 (2014)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연구』 15(2): 205-224.
- 최운실, 맹은경, 정구영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전환 담론 분석」, 『인문사회 21』 10(6): 1709-1720.
- 한현희 (2016) 「한국 통역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해외 연구 동향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7(2): 251-286.
- 한현희 (2017) 「한국의 통번역 교육 연구 동향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 『번역학연구』 18(1): 171-202.
- 崔啓亮 [Cui Qiliang] (2019) 「MTI翻譯技術教學體系設計」 [Design of MTI translation technology teaching system], 『中國翻譯』 [Chinese Translators

- Journal] 2019(5): 80-86.
- 古煜奎, 邵曦瑤 [Gu Yikui, Shao Xuyao] (2015) 「中國翻譯教學研究回眸 (1978-2013)」 [A Qualitative Review of Translation Teaching during the Period from 1978 to 2013], 『廣東外語外貿大學學報』 [Journal of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5(1): 54-59.
- 韓子滿, 侯新飛 [Han Ziman, Hou Xinfei] (2022) 「MTI翻譯實踐報告寫作中的理論框架問題」 [A Study on Theoretical Frameworks in Translation Reports of MTI Theses], 『外語電化教學』 [Technology Enhanc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2022(5): 25-30.
- 李德鳳, 胡牧 [Li Defeng, Hu Mu] (2009) 「翻譯教學研究:回顧與展望 (1980-2006)」 [Research on Translation Teaching: Progress, Problems and Prospects], 『中國科技翻譯』 [Chinese Science & Technology Translators Journal] 22(3): 32-34.
- 李偉, 張華慧 [LI Wei, Zhang Huahui] (2019) 「改革開放40年中國翻譯教學研究」 [On Translation Teaching Studies in China over the Past 40 Years Since Reform and Opening-up], 『湖南第一師範學院學報』 [Journal of Hunan First Normal University] 2019(60): 97-105.
- 孫三軍, 任文 [Sun Sanjun, Ren Wen] (2019) 「翻譯碩士學位論文模式探究」 [Types and Structures of the Degree Theses Required of China's MTI Students], 『中國翻譯』 [Chinese Translators Journal] 2019(4): 82-90.
- 肖嫻, 江藍夢 [Xiao Xian, Jiang Lanmeng] (2019) 「我國近十年來翻譯教學研究課題選擇述略 (2008-2018)」 [On the Selection of Research Topics in Translation Teaching in China over the Past Ten Years (2008-2018)], 『外文研究』 [Foreign Studies] 2019(3): 91-95.
- 趙丹 [Zhao Dan] (2023) 「中華文化“走出去”背景下譯者多元能力素養構建」, 『English Square』 2023(28): 28-31.
- 趙覓, 王林海 [Zhao Mi, Wang Linhai] (2020) 「我國翻譯教學研究的現狀與展望 — 一項基於CNKI的知識圖譜分析」 [The Status Quo and Prospect of Translation Teaching in China — A Study Based on Analysis of CNKI Knowledge Map], 『外語電化教學』 [Technology Enhanc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2020(1): 59-64.

仲偉合 [Zhong Weihe] (2019) 「改革開放40年我國翻譯專業教育：成就、挑戰與發展」, 『中國翻譯』 [Chinese Translators Journal] 2019(1): 68-75.

Kiraly, Donald (2014)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o Translator Educ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rends of and Outlook fo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Research in Korea and China for the Past 15 Years

Kyoung-yi Kang
(Ewha Womans University)

Currently, not only th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dustry but the relevant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facing challenges posed by fundamental changes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pandemic.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trends of research 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for the past 15 years to identify key research focuses to the main focus of follow-up research to better cope with the shift in education trends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goal, studies 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published between 2008 and 2022 in the two country's major academic journals were categorized by topic to examine the general research trends. Then, titles in the most frequently addressed research areas were analyzed to elicit major keywords. Based on the analysis, research trends in Korea and China were compared to provide suggestions about future research focus.

Keyword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ducation research, Korea, China, research topic, major keyword

주제어: 통번역교육 연구, 한국, 중국, 연구 주제, 핵심 키워드

강경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jjongli1011@naver.com

관심 분야: 문화콘텐츠 번역, 번역교육, 비평적담화분석

논문 투고: 2023년 11월 11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12월 13일

게재 확정: 2023년 12월 18일